

## 2022년 6월 19일 “예수님의 비유(2) 곡식과 가라지” (마 13:24-30)

오늘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하는 현실적 문제를 비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1] 공존하는 밀과 가라지

이 비유에 대해 주님은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36 절 이하).

좋은 씨를 뿌리는 자 = 예수님; 밭 = 세상; 좋은 씨 = 나라의 자녀들;  
가라지 = 악한 자의 자녀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 = 악마; 추수 때 = 세상 끝 날;  
추수꾼 = 천사들; 가라지를 불 태우는 일 = 세상 끝 날에 있을 일.

뿌려진 밀의 씨가 자라는 가운데 가라지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심은 독보리인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야 두 식물의 분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밀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씨를 뿌려 천국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그런데 이 때 사탄도 왕성하게 활동하여 진리를 배격하는 사람들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천국의 자녀들과 원수의 자녀들이 양립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밀과 가라지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불리 가라지를 구별하여 뽑아낼 수 없습니다. 밀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에 무력 저항을 감행하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가라지로 취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첨가한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지키는 자들은 알곡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가라지로 여겼습니다. 둘 다 인간적 기준으로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밀은 언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열매 맺을 때입니다. 열매로 두 식물의 차이가 구별됩니다. 이 때 열매로 예수님의 성품과 방식과 태도와 뜻을 드러내면 인정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면의 씨름이 불가피한데, 내면의 밭에서도 공존하는 밀과 가라지를 보게 됩니다.

### [2] 내면의 가라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창 1:26,28).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존재이며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생각과 가치관과 안목, 내면의 균형, 긍정의 태도 같은 것들은 하나님 형상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면 속에서 함께 자라는 가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을 만들어 보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도록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형상에 대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 기저에는 항상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일면만 보게 하여 잔인하고 경쟁만 치열한 현장으로 보게 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가라지는 삶과 역사를 보는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따라서 왜곡 또한 내면의 가라지의 다른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욕망의 가라지를 뽑으려다 진리를 향한 거룩한 욕망도 뽑히고, 왜곡을 뽑으려다 달갑지 않은 완벽주의로 빠지게 될 위험이 있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라지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발견하고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그 반응이 감사입니다. 삶에서 감사의 많은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밀을 잘 가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면 가라지들이 힘을 잃고 주님의 때에 거두어져 갈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를 통해 가라지는 주님께 맡기고 밀이 잘 성장하도록 애쓰는 거룩한 욕망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밀과 가라지 비유를 36 절이하의 말씀에 비추어 묵상해 보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 나의 내면에서는 어떤 가라지가 발견되니까? 그대로 두라는 주님 말씀에 입각하여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